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19. 8.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후원회원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빌며, 가나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두 달간의 한국휴가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가나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엠블런스를 후원받아 더 기쁜 것 같습니다. 가나에 도착한 후 한 달 후쯤 엠블런스를 가나에서 받을 수 있었고, 기증하기 전에 차량 내부 여기저기 살펴보니 손을 봐야 할 곳들이 여럿이어서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린 듯합니다.

수리를 마친 후 이틀에 걸쳐 20시간 넘게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가나 북쪽에 위치한 시리구(Sirigu)라는 시골마을의 작은 클리닉이었습니다. 이 클리닉은 관할 본당 사제의 지도를 받고 있었고, 시설은 비록 작지만 국경을 넘어 부르키나파소에서 내려오는 환자들과 인근지역의 환자들이 찾는 클리닉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간에 맞추어 클리닉에 도착하니 마을 주민들과 병원 관계자들, 환자들이 이미 와 있었고, 한쪽 천막에는 부족장과 원로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본당 신부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환영의 노래와 춤들, 그리고 엠블런스 축복식이 이어졌고 그 후 부족장은 저희를 가운데로 불러 감사의 인사를 하시고 염소 한 마리를 선물로 주셨지요. 이어 차 키를 전달하는 예식을 하였는데, 제가 차 키를 교구 사무국장 신부님에게 전달하고, 사무국장 신부님은 본당 신부님에게, 본당

신부님은 부족장에게, 부족장은 병원 담당자, 그리고 운전자에게 키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정말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키를 받은 이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주민들과 환자들의 환호와 노래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엠블런스는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의미이기에 더욱 크게 환대해주시고 기뻐하신 듯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모습을 모두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조금이나마 그 느낌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 몇 장을 보내드립니다. 보시면서 이 클리닉을 찾은 모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척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로웠지요. 우리는 선물로 받은 염소를 차에 싣고 돌아오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문화 안에서 부족장의 선물은 절대 다른 이에게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인근 공동체에 선물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염소와 함께 다시 이틀에 걸쳐 돌아오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요. 창문을 열고 돌아왔는데도 멀미를 세 배로 한 것 같습니다. 이곳 가나는 염소 값이 무척 비싸서 평소 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고기음식입니다. 도착한 다음날 저녁, 식탁에 염소탕과 염소구이가.... 저는 냄새 때문에 아예 먹지 못했지만 공동체 수녀님들은 이날 생일을 맞은 듯 얼마나 기뻐들 하는지... 이 모습만으로도 저는 배부른 듯합니다. 이러한 보람과 행복은 모두 여러분들께서 나누어주신 사랑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의 기도 안에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안에 늘 머무시길 바라며...

고은희 카타리나. FMM.





## - 아씨시의 성녀 클라라 -



성녀 클라라는 1193~4년에 아씨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께만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같은 아씨시 출신인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를 따라 복음적 이상을 살기 위하여 세속을 버렸습니다.

성녀 클라라는 성 다미아노의 작은 성당곁에 거처를 마련하여, 철저한 가난과 관상생활 안에서 성녀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평생을 성 다미아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자매들을 돌보았고 쉬지 않고 일했으며 온 영혼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성체께 대한 성녀의 깊은 신심은 1240년과 1241년에 아씨시를 사라센으로 부터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녀 클라라는 1253년 8월 11일 산 다미아노에서 선종하였고, 교황 알렉산드로 4세 때 시성되었습니다.

**“ 오 복된 가난이여. 가난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영원한 부(富)를 주리니!**

**오, 거룩한 가난이여, 가난을 지니고 열망하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하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의심할 여지 없이 영원한 영광과 복된 생명을 베푸시리니! ”**

( 프라하의 아녜스에게 보낸 편지 1 중에서)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